

## 유몽인(柳夢寅)의 소설 「애귀전」(愛鬼傳)의 창작 방식과 주제 의식\*

정솔미\*\*

- I. 서론
- II. 예비적 고찰
- III. 「애귀전」의 구성 방식
- IV. 「애귀전」의 창작 의도와 주제 의식
- V.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그간 ‘일기’ 혹은 ‘사실의 기록’으로 이해되어 오던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산문 작품 가칭 「애귀전」(愛鬼傳)의 창작적 면모에 주목하고, 이를 소설로 보는 시각에서 그 형식과 주제 의식을 규명함에 목적을 둔다. 본디 제목이 없는 이 작품은 유몽인이 미처 온전히 정리하지 않은 기록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그 허구·창작적 면모나 앞 시기 채수(蔡壽)의 「설공찬전」(薛公贊傳)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이를 소설 ‘애귀전’이라 칭할 수 있다. 자신의 집안에 벌어진 괴이한 귀신 이야기를 꾸며 장장 32면에 달하는 큰 서사 편폭 속에 일인칭 시점으로 기록한 이 이야기는, 일차적으로는 그가 직접 들은 전문(傳聞)에 연원을 두었을 소지가 있어 보이나 작가가 적극적이고 자각적으로 서술에 개입하여 이 작품을 창조적 서사체로 압히도록 한 회필적(戲筆的) 창작의식을 근간으로 한다. 이에 이 작품은 어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88734)  
\*\* 서강대학교 한국문화연계전공 강사

디까지나 그 ‘연원’을 필기로 삼고 있으되 소설적 전화(轉化)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애귀전」은 작가의 애첩 애개(愛介)가 정실부인을 저주한 것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한 후 집안에 나타나 각종 변고를 일으킨 사건들을 나열하며 염라대왕 등 저승의 시왕께 그 죄상을 고발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실사가 아닌 허구와 우의(寓意)를 갖들이고 전(傳)이나 필기(筆記)의 일반적인 서사 전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상소문 양식과 ‘일사기’(逸事記)를 조합하여 그 형식을 다채롭게 하였다. 단, 작가는 엄숙한 상소문 양식을 쾌리디하고 ‘일사’의 기록·서술에서는 재래하던 귀신담에 희극성과 농조(弄調)를 띤 다양한 변주를 가하는데, 이에 작품에는 희작적이고 유쾌한 기조가 감지된다. 그러나 기실 이 작품은 귀신에 빚대어 실존 인물 및 조정의 여러 권간(權姦)들을 우의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품의 내외적 정황에서 알 수 있듯이 ‘애개’는 당대 광해군의 총첩(寵妾) 김개시(金介屎)를, 그 주변의 남성 귀신들은 조정의 간신들을 우의한다. 한편, 귀신의 작화 사건은 유몽인의 ‘직접체험’이 아닌 그가 들은 ‘전문’에 의한 사건 서술로 진행된다. 이에 작품 전체의 서술 구조에는 노복, 여종, 집안사람들의 목소리가 혼합되며 한편으로는 서사적 자아인 작가 유몽인의 목소리 또한 공존하게 된다.

이러한 형식상의 파격을 통해 유몽인은 자각적으로든 아니든 한 편의 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는데, 그 창작의식의 기저에는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비판과 기롱이 있음이 발견된다. 그는 귀신의 괴기스런 형상을 통해 당시 조정이 권간(權奸)들에게 장악된 것을 비판하고 기롱하며, 시왕에게 아무리 상소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제시하면서 광해군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기탁한다. 또한, 그는 귀신을 비판하고 자신의 처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간신들에 의해 참소당해 굴절된 그 삶의 분만을 터뜨리고,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당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자존의식을 드러낸다.

상기한 논의를 통해 그간 유몽인의 신변 체험담 정도로 여겨지던 「애귀전」이 뚜렷한 창작의식을 갖고 지어진 작품임이 밝혀지고, 또 그 미학과 주

제의식이 대강 드러났다고 생각되나, 「설공찬전」을 계승하며 소설사에서 주목될 수 있는 작품인 만큼 앞으로 작품론과 함께 그 소설사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유몽인, 귀신담, 애귀전, 소설, 김개시, 광해군

## 1. 서론

본 연구는 그간 ‘일기’ 혹은 ‘사실의 기록’으로 이해되어 오던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산문 작품 가칭 「애귀전」(愛鬼傳)의 창작적 면모에 주목하고, 이를 소설로 보는 시각에서 그 형식과 주제의식을 규명함에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이 이룬 특별한 성취가 다각도로 이해되고 그 문학사적 위상이 자리매김될 것이다.

「애귀전」은 유몽인의 공식 문집 『어우집』(於于集)에는 없고 작가가 직접 쓴 『묵호고』(默好稿)에만 실린 작품으로,<sup>1)</sup> 본래 별도의 제목은 없으며 각면 12행, 각행 대략 24자로 총 32페이지 가량으로 기록되어 한문소설 「최고운전」을 능가할 만한 중편에 해당한다. 그 내용은 주로 유몽인의 애첩 귀신 오애개(吳愛介)와 유몽인의 갈등에 대한 것이다. 즉, 유몽인의 첩 애개가 정실부인 신씨(申氏)를 저주하다가 주살된 후 귀신이 되어 집안에 나타나 갖은 작화를 일으킨 것, 그리고 그를 퇴치하고자 유몽인과 그 아들 유약(柳瀾)이 고투한 과정을 소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유자들은 원론적으로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는[敬而遠之] 존재로 여겼으며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하지 않는다[子不語怪力亂神]는 글쓰기 지침에 따라 귀신이나 무당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삼갔다. 그런데 유몽인은 자기 집안의 일이라 하며 몇몇 집안사람과 주변인의 실명

1) 이 자료를 최초로 소개한 논문은 신익철의 「《默好稿》를 통해 본 《於于集》 편찬태도」(『서지학보』 제10호, 한국서지학회, 1993)다.

을 거론하고, 장장 32면에 달하는 큰 서사 편폭 속에 일인칭 시점으로 귀신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 문학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일차적으로 유몽인의 문집 편찬 의식을 논한 연구 뿐 아니라<sup>2)</sup> 작가론을 다룬 몇몇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며<sup>3)</sup> 근래에는 조선시대 귀신담 연구에서 주목해오고 있다.<sup>4)</sup>

그런데 유몽인의 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자들이 일찍이 이 작품에 나타난 우의성에 주목한 것과는 달리,<sup>5)</sup> 근래 제출된 귀신담 연구들은 이 글을 온전히 ‘사실의 기록’이라는 독법으로 읽어내고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귀신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애귀진」을 최초로 작품론의 시각에서 검토한 연구에서는 그 창작 목적이 ‘귀신체험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귀신과 저승의 세계를 현실로 수용하는 태도’를 서술함에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sup>6)</sup>

「애귀진」에 기록된 유몽인의 가족사가 실제 체험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는 없고, 작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그의 당시 행적과 서강(西江) 별장 및 용산 피접소(避接所) 등과 같은 공간, 몇몇 실존 인

2) 신익철, 앞의 논문; 김홍백, 『柳夢寅 文集에 대한 書誌의 고찰』, 『규장각』 제48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3) 신익철, 『유몽인 산문 연구』, 보고서, 1998; 김홍백, 『유몽인의 經世 의식과 산문세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4) 이주영, 「조선후기 筆記·野談 소재 鬼神談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이주영, 「『묵호고(默好稿)』 소재 ‘애귀(愛鬼) 이야기’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64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0; 김희성, 「『어우야담』 귀신담 연구와 영문 번역」,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21; 정솔미, 「한국 문헌소재 귀신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필자는 연전에 이 박사학위논문을 구상하던 중 이 작품을 주목하여 2019년 봄에 한국연구재단에 신진학술연구자 연구비를 지원 신청하는 과정에서, 학계 연구자들에게 인터넷으로 공개된 연구계획서를 통해 이 작품에 대한 간단한 해제와 함께 그 소설사적·문예적 가치를 강조하며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5) 예컨대 이 자료를 최초로 보고한 논문에서 짙막하게나마 작품에 ‘혼탁한 세상에 대한 시대 의식의 반영’된 사실을 적시한 바 있으며(신익철, 앞의 논문, 16면), 추후 제출된 유몽인 작가론에서 이 작품을 “신이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나 대상을 단지 쇄말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비판하고 성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다(김홍백, 앞의 논문, 76면). 이러한 지적들은 정곡을 얻었다고 생각된다.

6) 이주영, 「『묵호고(默好稿)』 소재 ‘애귀(愛鬼) 이야기’ 연구」, 『한국문학연구』 6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0, 146면. 이주영은 이에 앞서 「조선후기 筆記·野談 소재 鬼神談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의 35면과 80~83면에서 이 작품을 분석하면서 이를 ‘귀신 체험담’으로 상정하기도 하였다.

물의 이름, 그 처의 작고 시기 등을 미루어 보아 이 글은 상기한 연구의 지적대로 일차적으로는 그의 자전적 체험에 연원을 두었을 소지를 배제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 글을 쓴 1621년 무렵은 유몽인은 파직당하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다. 즉, 당시 유몽인의 집안에 ‘첩의 귀신이 붙어 본처와 집안을 망친다’는 인식이나 이러한 인식에 의거한 소문이 있었을 가능성은 상정할 수 있다. 즉 작가의 신변 사실에 비근한 작품의 구체적 시공간적 배경이나 사건을 미루어보건대 유몽인이 당시의 유언(流言)에 근거하여 이 작품을 구상했을 개연성이 있기에, 이런 면에서 이 글을 ‘필기’로 규정한 선행연구의 시각에는 얼마간 동의할 점이 있다. 다만 당대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인물인 유몽인의 첩이 가내외에 작화를 했다는 다른 기록은 현재 찾을 수 없으므로, 엄청난 귀신의 작화를 그린 이 작품을 작가의 순연한 자전적 체험기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한다. 요컨대 자전적 체험기[逸事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작가의 체험이나 신변적 사실은 이 작품 창작에 하나의 계기나 배경, 연원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애귀전」에는 한편 작가가 적극적이고 자각적으로 서술에 개입하여 이 작품을 창조적 서사체로 읽히도록 한 희필적(戲筆的) 두드러지고 우의적 의도가 간취되므로,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그 ‘연원’을 필기로 삼고 있을 뿐 소설적 전화(轉化)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작가의 ‘귀신이나 이계에 대한 개방적 인식’은 이 작품에 나타나는 주제의식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 창작 목적이라 할 만큼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본고는 그러므로 이 작품을 ‘사실의 기록’으로 본 시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즉, 유몽인의 「애귀전」은 허구성이 짙게 개입된 작품으로서 작가의 자각적 ‘창작의식’이 적극 반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그 창작의식이 어떤 형식적 특질을 통해 드러나는지,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작품에 우의적으로 투영된 창작의식 내지는 다양한 주제의식이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 II. 예비적 고찰

### 1. '애귀전'이라는 명칭

본고는, 본래 제목 없이 “余亡室貞夫人申氏”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작품을 「애귀전」이라 명명하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 작품에 왜 제목이 없는지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유몽인의 글 가운데 유일하게 제목이 없다. 『어우집』에 실린 글은 물론 『묵호고』에서 『어우집』으로 실리면서 누락된 글들이 모두 제목이 있는 것에 비해 이 작품만은 유독 제목이 없는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일차적으로, 이 글이 작품으로 완성되기 이전의 ‘초고’가 아닐까 하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sup>7)</sup> 이 작품을 단순히 귀신체험담의 필기로 본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 글은 처음 볼 때 다소 난삽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 까닭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크게 다섯 단락으로 구성된 이 글에 내용상 서로 중첩되거나 모순되는 대목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짚어낼 수 있다.

이 작품은 구성상으로 총 다섯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저승 시왕(十王)에게 상소문을 올리게 된 내력의 요약적 제시: 유몽인의 첩 오애개(吳愛介)가 그 본처를 저주한 것이 국무(國巫) 복동(福同)에 의해 밝혀져 죽임을 당한 뒤 귀신이 되어 작화(作禍)함 ②시왕(十王)에게 올리는 첫 번째 상소문: 애개가 본처를 저주한 일은 궁궐의 법도로 치면 대역죄에 해당하는데, 애개가 생전에 불전(佛殿)에 보시한 응보로 저승에서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처벌해 달라고 상소함 ③시왕에게 올리는 두 번째 상소문: 애귀가 귀졸(鬼卒)에게 잡혀갔으나 그 무리인 김상(金祥)·김선(金善)·성춘(成春) 귀신이 남아있으니 모두 잡아 달라고 재차 상소함 ④시왕에게 올리는 세 번째 상소문: 애귀가 다시 들

7) 이주영, 앞의 논문, 122면.

아와 작폐를 하니 물리쳐달라고 상소하면서 그전에 미처 고하지 못한 일을 고함. 자신이 애개를 죽인 경위, 애귀가 유몽인의 아들 유약(柳淪)의 첩 박씨(朴氏)에게 씌워 온 집안을 어지럽히며, 전계원(全繼元) 귀신·김응하(金應河) 귀신·유득봉(柳得朋) 귀신 등이 함께 유몽인 집안을 괴롭힌 일, 애귀가 복동을 찾아가 협박하고 금강산 중 운인(雲印)을 희롱한 일, 김상과 춘경 귀신을 만난 일 등을 서술하고 애귀를 물리쳐달라고 상소함 ⑤ ‘삼소문일사기’(三愆文逸事記): 상소문에 미처 담지 못한 애귀의 작폐를 추가적으로 기술하고, 귀신들과 인간의 문답이 제시됨. 애개는 끝내 유몽인의 집에 다시 돌아오려 했으나 문신(門神)에게 가로막혀 떠나감.

위에 제시한 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시간적 순서도 두서없이 섞여 있다. 예컨대 ① 단락의 내용은 ③에서 다시 서술되며, ④나 ⑤ 단락의 경우, ‘그간 말하지 못한 일들을 꼭진하게 고한다’면서 일전에 있던 일들을 다시 서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러 차례 작품을 읽지 않는 이상 서사적 시간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뿐 아니라 내용 가운데 충돌되는 서술도 종종 보이는데, 예컨대 ③ 단락에서 ‘김상’이라는 귀신은 퇴치된 것으로 서술되지만 다시 ④ 단락에서 재등장하며, ④ 단락에는 애귀가 복동을 협박하여 대접을 받은 일화가 나오는데 이 단락의 마지막에서는 또 갑자기 애귀가 복동을 죽였다는 말로 마무리되어 있어 의문을 자아내기도 한다. 끝으로, ⑤ 단락에도 역시 서로 충돌되는 내용이 많은데, ‘삼소문일사기’(三愆文逸事記)라 칭한바 애귀가 물러간 것과 이에 대해 느낀 감회를 늘어놓은 대목에서 글이 끝나야 할 듯한데 그 뒤에 ‘○’ 표시를 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글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해당 단락에서는 상소문을 바치자 애귀가 물러갔다는 앞의 서술과는 달리 애귀가 도로 출현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결말부에서 다시 애귀가 울며 ‘자취를 끊고 오지 않았다’고 마무리된다. 그래 놓고 그 뒤에 다시 ‘○’ 표시를 하여 또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며, 역시 애귀가 또 찾아와 유몽인과 직접 대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이 글을 작가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관적으로 정리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새로운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는 양상 또한 이 작품의 일관성과 개연성

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기왕의 연구에서도 지적됐듯이 이 작품에서는 귀신의 이름이나 유몽인 집안사람들의 이름이 지나치게 소상하게 적혀 있다. 특히 실명이 거론되는 귀신들이 다수 등장하는 것은 다른 작품에서는 찾기 어려운 현상인데, 전계원(全桂元), 유득봉(柳得朋), 홍윤(洪潤), 강진룡(姜震龍), 박종해(朴宗海), 응량(應良), 응열(應悅), 김상(金尙), 원말종(元末從), 남두행(南斗行), 춘경(春卿), 춘향(春香), 김선(金善), 성춘(成春)과 같이 그 실존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이들이 귀신 이름으로 거론되는가 하면 김응하(金應河)·고경명(高敬命)·이대원(李大源)과 같이 전란에 죽은 유명한 무인(武人)들도 귀신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전계원이나 유득봉 귀신은 출현 빈도도 높고 그 성격도 뚜렷하게 그려지나, 나머지 귀신들은 단편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갑작스럽게 그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여 이 작품이 잘 정돈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쓴 글,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문장 역시 다소 난잡한 감이 있다.

상기한 사항들을 고려해볼 때, 이 글에 제목이 따로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아마도 작가 유몽인이 이를 한 차례 검토하고 하나의 일관된 글로 다듬어 유지 않았던 정황에 기인한 듯하다. 또한, 이러한 정황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었지만 이 글은 형식적으로 잡박한 장르가 섞여 있는 탓에 ‘記’라든가 ‘疏’와 같이 어느 하나의 양식으로 귀속하기 어려웠으므로 그 제목이 확정되지 못한 채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의 서두, 즉 ①단락은 완전한 필기의 형식을 보이며, ②~④단락은 유몽인이 스스로 이름한바 <삼소시왕문>(三愍十王文)이라 하여 상소문 또는 주의(奏議)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제⑤단락 역시 작가가 ‘삼소문일사기’라 이름했듯이 기(記)의 양식 안에 넣으면서도 그 안에 마치 야담과 같이 전문(轉聞)을 기록한 형태의 글을 넣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 글은 다종의 글쓰기 양식이 혼효되어 있어 그 제목을 붙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형식적으로 다양한 글쓰기 양식이 혼재되고 내용적으로 인물 간의 갈등이 첨예하며 이 갈등이 작품의 시간성 속에 개진되는 글을 우리는 ‘소설’이라 한다. 더구나 추후에 상술하겠으나 이 글에는 허구도 상

당히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록 작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 않았다고 짐작되나, 필자는 이 작품이 소설적으로 강한 경사를 보인다고 여겨 일반적으로 고전소설 제목을 붙이는 방식을 취해 이 작품을 ‘애귀전’이라 칭하도록 한다. 작중의 중심인물인 ‘애개’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그가 귀신이 된 것이 모든 사건을 추동하는 근원적 계기가 되므로 유몽인이 이름한 ‘애귀’(愛鬼)를 제목의 전면에서 내세웠으며, 통상 고전소설이 무슨 무슨 ‘전’이라 칭해지는 전통을 따라서다. 본래 제목이 없던 작품을, 이러한 관행에 따라 학계에서 임의로 이름 붙인 다른 사례로 성현(成僎)의 「안생전」(安生傳)을 들 수 있다.

다만, ‘안생전’이, 사건의 중심에 있으면서 기이한 체험을 하는 남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목을 취한 것과 달리 본고에서는 귀신인 애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그 까닭은 앞서 서술한바 모든 사건의 계기가 ‘애귀’에서 비롯될 뿐 아니라 이 작품에서 앞선 시기 채수(蔡壽)의 「설공찬전」(薛公贊傳)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채수는 「설공찬전」에서 ‘윤회회복’을 말하고 지나치게 괴이한 귀신의 일을 기록한 일로 크게 비난을 받았으며 「설공찬전」은 왕명으로 소각되었다. 그런데 현전하는 일부 국문본 필사본에 의거할 수밖에 없으나, 「애귀전」은 이 「설공찬전」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우선, 「애귀전」은 완전한 허구에 기초한 전기(傳奇) 전통과는 달리 일차적으로 필기에 연원하고 있으면서도 소설로 각색된바 이 점에서 「설공찬전」에 맥을 대고 있다고 여겨진다.

본디 필기는 사(士)의 관심사에 입각한 견문과 체험을 서술한 것으로서 귀신에 대한 일을 기록하는 작가의 태도에는 유가적 의식이 견지되는데, 고려시대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에서부터 발견되는바 귀신을 축출의 대상이나 ‘요사스러운’ 존재로 비정하는 태도, 귀신 출몰 사건을 교훈적인 태도에서 평가하려는 태도 등이 필기로 기록된 귀신담에 보이는 특질이라 할 수 있다.<sup>8)</sup> 그런데 대개 짙막한 형태로 전하면서도 ‘유가적 태도’가 뚜렷이 견지되는 필기로 기록된 여타 귀신담과는 달리, 「설공찬전」은 실화에 기초하면서도 서사의 편폭을 넓히고 허구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소설로 전

8) 이상 필기로 기록된 귀신담의 특징에 대해서는 정솔미, 앞의 논문의 170~180면에 자세히 다룬다.

환되는 면모를 보인다. 즉, 「설공찬전」의 경우, 소재가 되는 인물과 사건은 실존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사건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데 그치거나 유가적 교화를 추구하는 시각에서 각색되기보다는, 설공찬의 혼령과 이를 퇴치하려는 설충수 간의 대결, 염라대왕과 성화황제의 대립, 인간세계와 이계(異界)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를 형상화하여 소설로서 전화(轉化)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sup>9)</sup>

둘째, 귀신의 성격이나 그 작화를 묘사하는 방식이 비슷하다. 현재 부분적으로 전하는 「설공찬전」의 서사의 앞부분에는 귀신이 일으키는 작화를 매우 괴기스럽게 묘사하며, 귀신을 축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귀신이 끊임없이 비웃고 조롱한다. 아무리 쫓아내려 해도 귀신은 다시 집안 사람에게 빙의되어 인간을 괴롭히는데, 이렇듯 귀신이 집안의 구성원에게 빙의하여 긴 시간 동안 인간을 지긋지긋하리만큼 심하게 괴롭히는 방식은 유독 「설공찬전」과 「애귀전」에 잘 드러난다. 무당을 불러 처치하려 해도 오히려 귀신이 인간을 기롱하는 대목 역시 양 작품에서 공히 발견된다.

셋째, 현전하는 자료로 판단해보건대 작품의 구조에서도 상동성이 발견된다. 「설공찬전」과 「애귀전」은 모두 그 줄거리상 ① 귀신의 출몰 ② 귀신과 인간의 갈등 ③ 귀신의 입을 빌려 말하는 저승의 이치의 순서로 짜여 있다. 더구나 그 전체적 면모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설공찬전」에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풍유(諷諭)에 대한 단초가 발견되는데,<sup>10)</sup> 후술하겠으나 「애귀전」은 작가의 창작적 개입을 통해 당대 정치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개진한바 「설공찬전」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인다.

이상 서술한바 「설공찬전」은 유몽인의 이 작품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되므로, 이 작품의 제목을 「설공찬전」에서처럼 사건을 주동하는 주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애귀전」이라 칭해보고자 한다.

9) 이복규, 「『설공찬전』이 실화에서 유래한 소설일 가능성」, 『국제어문』 제28집, 국제어문학회, 2003.

10) 위의 논문.

## 2. 「애귀전」과 『어우야담』 속 귀신담의 관계

두루 알려져 있듯이 유몽인은 『어우야담』에 상당수의 귀신 이야기를 수록해 두었다. 「애귀전」은 1621년 이후 기록된 것으로 판단되고<sup>11)</sup> 『어우야담』은 유몽인의 이른바 ‘은거기’ 즉 1618년에서 1623년에 집필된 것으로 확인된다.<sup>12)</sup> 어느 선행연구에서는, 『어우야담』이 1622년 기록된 사실을 들어 유몽인이 애귀 사건을 겪은 뒤 귀신에 대해 개방적 인식을 가진 것이 『어우야담』에 귀신담이 다수 수록된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도 하였다.<sup>13)</sup> 그러나 『어우야담』에 실린 글들은 그의 은거기가 시작된 1618년 이래 꾸준히 채집된 것들로서 꼭 1621년 이후 완성된 것들로 보기 어렵다. 또한, 다음의 정황들을 보건대 『어우야담』에 수록된 귀신담, 즉 당대 떠돌던 귀신담들이 오히려 「애귀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첫째, 작가가 작품 문면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로서, 작가는 스스로 축귀담의 주인공으로 나서리만큼 귀신담과 축귀담의 그 전통에 익숙해 있었고, 애초 이 작품을 창작한 동기 자체가 귀신의 횡액을 묘파하고 이를 내쫓으려는 축귀문(懾十王文)의 작성에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작품의 전개에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시왕에게 사뢰는 상소문(懾十王文)’을 짓게 된 계기는 애초 『어우야담』에 수록된바 유몽인이 시를 써 학질, 즉 역귀(疫鬼)를 쫓아낸 일화<sup>14)</sup>로부터 비롯된다. 유몽인이 연산(連山)에 우거할 때 집안의 종이 병을 앓았으므로 장난삼아 역귀를 위협하는 시를 지어 그 등에 붙였는데 그 종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러자 온 집안이 그 글을 베끼고 이윽고 근방의 모든 읍,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의 많은 지역에서 그 시로써 학질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근저에는 자신의 글에 대한 강한 자긍심이 깔려 있는데, 「애귀전」의 초두에는 유몽인이 집안의 귀신이 작화하는 것을 근심하자 그 표질(表姪) 홍서봉(洪瑞鳳)이 이 일화를 언급하면서 글로써 귀신을 물리칠 것을 권했다는 서술이 보인다. 요

11) 「애귀전」의 ‘삼소문일사기’에는 ‘신유년’(辛酉年, 1621)이라는 말이 나온다(“鬼之不來, 已三年, 辛酉秋”, 柳夢寅, 국립중앙도서관본 『목호고』 86면).

12) 유몽인의 ‘은거기’와 그 저술 활동에 대해서는 김홍백의 앞의 논문(32~45면)에 자세히 다룬다.

13) 김희성, 앞의 논문, 6면.

14) 『어우야담』 178화

컨대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 계기는 『어우야담』에 수록된 유몽인의 축귀(逐鬼) 일화가 되는 것이며, 그 집필 동기의 근거에는 사대부로서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과 함께 글로써 천지신명과 귀신조차 감화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는 작가의 문사로서 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

둘째, 「애귀전」에는 귀신의 작화, 귀신을 쫓아내는 당대의 민속, 당대의 귀신 신앙 등이 대단히 소상하게 실려 있는데 이는 『어우야담』에 다채롭게 기록된 귀신담을 참조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17세기 귀신담은 일상에서 마주한 귀신에 대한 다채로운 체험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이는 데,<sup>15)</sup> 『어우야담』에 수록된 수많은 귀신담은 그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17세기에 비해 좀 더 유교적 이념에 투철했던 16세기 사대부의 일기에서 발견되는 곳이나 축귀(逐鬼) 의식에 대한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대부들은 이념적으로는 괴력난신을 거부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괴력난신의 세계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sup>16)</sup> 17세기는 전란과 역병, 기근 등을 거치며 인간의 대량 죽음을 겪은 직후의 시기로서 죽음이나 이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을 뿐 아니라<sup>17)</sup> 일각에서는 사상적 유연성이 감지되며, 야담과 같은 ‘이완된’ 장르가 출현하여<sup>18)</sup> 귀신에 대응하는 인간의 다양한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어우야담』에는 인간의 해골로 집 주인을 저주한 여종 이야기, 어느 집안에 출현한 귀신의 작화, 이를 쫓아내는 구체적인 방법, 귀신의 저주를 푸는 방법과 같이 ‘축귀’하는 인간의 대응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폭 실려 있다. 또한, 귀신과 마주한 이가 그 원한을 풀어준다거나 또는 저승 세계의 이치나 질서에 대해 묻는 이야기도 다수 실려 있다. 「애귀전」은 ‘정실 부인을 저주한 여종이 귀신이 되어 집안에 붙어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야기이자 ‘이를 퇴치하는 한편 그에게 저승의 이치를 듣는’ 이야기로서 『어우야담』에 실린 다양한 귀신담이

15) 정환국, 17세기 이후 귀신이야기의 변모와 저승의 이미지, 『고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111면; 이주영, 앞의 논문, 30~31면.

16) 조현철, 「16세기 일기문학에 나타난 사대부들의 신이담론과 소설사의 관계」, 『동악어문학』 제51집, 동악어문학회, 2008, 261면.

17) 윤혜신, 「『어우야담』 소재 귀신담의 트라우마(trauma)적 성격」, 『대동문화연구』 제6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253~255면; 정환국, 앞의 논문; 이주영, 앞의 논문.

18)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종합적으로 재구성 또는 집대성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단, 후술하겠지만 「애귀전」은 이러한 면모를 보이는 일군의 귀신담을 패러디하고자 한다.

셋째, 『어우야담』의 귀신담에는 귀신, 특히 여성 귀신을 통해 특정 인간형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는 경향이 현저한데 「애귀전」은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이상의 이야기들을 좀 더 편폭을 확장하고 다채롭게 꾸며낸 듯하다. 귀신은 본디 인간의 원망(願望)과 욕구, 그리고 그 좌절이나 결핍과 같은 정신적 상흔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 성격이나 형상에는 인간과 비슷한 면이 투영되기 마련이지만, 특히 17세기를 전후한 귀신담에는 그러한 양상이 두드러지며 유독 『어우야담』에는 여성 귀신을 형상화하면서 특정 인간군상에 대한 조소를 담은 이야기가 많다. 남성에게 붙어 떨어질 기미가 없는 어느 기생 혼령을 굿판 구경으로 피어 겨우 쫓아낸 이야기, 황건중에게 붙어 지겹도록 그를 쫓아다니며 짐착하는 여우 귀신 이야기, 과부로서 비구니처럼 살다 죽은 뒤 걸귀가 되어 나타나 집안을 멸망시킨 고모 귀신 이야기를 그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이들 여성 귀신의 형상에는 사대부가 소설이나 기생에 대해 갖는 심상(心象)의 스테레오타입, 또는 비구니에 대한 이미지가 과장되고 비틀린 형태로 투영되어 있다. 즉, 이들 작품에서 귀신은 소설이나 기생, 또는 비구니와 같은 계층을 우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이와 같은 야담집에 수록된 귀신담에 나타나는 귀신의 우의적 형상화는 작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기보다는 자연발생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는데, 「애귀전」은 이러한 당대 귀신담의 흐름을 포착하여 뒤틀린 욕망의 화신인 애귀의 형상을 통하여 그러한 면모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끝으로, 귀신을 서사의 등장 인물로 등장시킬 때, 그간 축적된 문학 전통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소외의식을 전제하며 이와 같은 경향은 『어우야담』 소재 귀신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예컨대 선행연구에서 지적해 왔듯이, 내려시대 「최치원」은 깊은 고독감을 느끼는 귀신과 인간을 제시함으로써 육두품 지식인의 문제의식을 심화시키며,<sup>20)</sup> 「만복사저포기」나 「이

19) 이에 대해서는 정솔미, 앞의 논문(225~228면)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20) 박희병, 『한국고전소설 연구의 방법적 지평』, 알레프, 2019, 34면.

생규장전』은 세조의 왕위찬탈에 대한 김시습의 비판적 현실인식의 발로에서 귀신을 등장시킨다.<sup>21)</sup> 『어우야담』에도 연산군 때 억울하게 죽은 홍귀달 귀신이 죽을 때의 감각을 생생히 재현하는 이야기<sup>22)</sup>와 같은 경우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전제하고 있는데, 추후 서술하겠지만 『애귀전』에도 강렬한 비판의식이 깔려있는바 유몽인은 당대 귀신담의 한 경향을 잘 포착한 듯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유몽인은 은거기에 채집한 귀신담의 흐름 및 특질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 특질을 잘 포착한 뒤 여러 귀신담을 조합 및 재구성하여 새로운 형식의 귀신 소설 『애귀전』을 집필한 것이 아닐까 한다.

### III. 「애귀전」의 구성 방식

#### 1. 기존 문학 양식의 패러디

유몽인의 「애귀전」이 실제 경험에만 의거하여 사실대로 쓴 글이 아니라 는 것, 즉 일정한 목적을 갖고 나름의 허구를 가미된 창작물이라는 사실은 우선 이 글의 구성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 글에는 전반적으로 작가의 희학적 태도가 감지되는데 이는 특히 기존 문학 양식이나 작품을 패러디하는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 장에서 확인했듯이, 작가는 「애귀전」을 총 5단락으로 구분하였다. 그 가운데 ‘애귀 출몰과 축승 사건’에 대한 경계를 제시한 제1단락 다음에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저승의 시왕(十王)에게 바치는 상소문이 제시된다. 작품의 본론이라 할 부분이 거개 호소문 속에 들어가 있는 셈인데, 이 ‘호소문’을 처음 제시할 때부터 작가는 희학적 태도를 전제하고 있다. 애귀의 작화가 끊이지 않자 그 표질 흥서봉은 『어우야담』에 실린바 일전에 유몽인의

21) 위의 책.

22) 정술미, 「조선시대 흥가의 문학적 형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49집, 한국고전문학회, 2016.

시가 연산 일대의 학질을 물리친 사건을 언급하면서 제문을 지어볼 것을 권했다고 하는데, 유몽인은 “이를 듣고 웃고는”<sup>23)</sup> 저승 시왕에게 바칠 호소문을 짓는다. 애초 연산에서 역질을 물리친 글에서도 ‘희작’이라는 말을 썼거니와,<sup>24)</sup> <삼소시왕문>을 짓기 전 다시 ‘웃음’을 언급함으로써 이 호소문에 다분히 희작적 태도가 개재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물론, 신에게 제사지내어 재앙을 물리치고자 한 글 자체가 모두 희작은 아니다. 특히 토지신에게 제문을 올리는 관례는 『주자대전』(朱子大典)에 실려 있어 조선 시대에 토지신에게 가뭄을 근심하여 비를 내려달라고 고하는 글, 집이나 묘 터를 닦을 때 허락과 안녕을 구하는 글, 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토로하는 글이 진지한 어조로 기록된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유몽인은 토지신이 아니라 명부시왕(冥府十王)을 상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비슷한 성격을 지닌 기존의 글에서 파격을 보인다. 시왕은 불교에서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열 명의 왕이며 이에 대한 제사는 주로 도교에서 지냈는데, 조선의 경우 16세기 유학의 강화로 소격서(昭格署)가 철폐된 이래 금지되었던 것이다. 시왕에게 올리는 상소문은 『동문선』(東文選)에 수록된 고려시대 승려 석무외(釋無畏)의 작품 「대인천도소」(代人薦母疏)와 「동전시왕전소」(同前十王前疏) 두 편 이외에 잘 보이지 않는데, 석무외의 글들은 자못 슬프고 진지한 어조로 모친상을 당한 이를 위해 그 어머니의 천도(薦度)를 기원하고 있다.

그런데 유몽인은 굳이 상소의 대상으로서 시왕을 택해 신에게 호소하는 여타 글과는 차별점을 보이며, 이마저도 ‘웃고’ 지어 희작적 필치를 가한다. 그런데 ‘웃고’ 지은바 시왕에게 바치는 호소문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짐짓 엄숙하게 시작한다.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갈충진성(竭忠盡誠) 위성공신(衛聖功臣) 가의대부(嘉義大夫) 전(前) 이조참판(吏曹參判) 시겸(時兼)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승문원제조(承文院提調) 교서관제조(校書館提調) 봉상시제조

23) “余聞而笑之”(柳夢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默好稿』, 58면)

24) “余戲作四韻律一首.”(유몽인, 신익철 외 편역, 『어우야담-원문』, 돌베개, 2006, 142면)

(奉常寺提調) 귀후서제조(歸厚署提調) 서적도감제조(書籍都監提調) 증훈부당상(忠勳府堂上) 영양군(瀛陽君) 유몽인(柳夢寅)은 감히 시왕(十王) 여러 대왕께 고 하나이다.<sup>25)</sup>

상기한 인용문은 유몽인 자신이 실제로 역임한 벼슬을 나열한 것인데, 위와 같이 ‘유명조선국’으로 시작하여 그 뒤에 자신의 지위를 일일이 노출하는 방식은 주로 상급 기관에 아뢰는 정서(呈書)나 왕에게 바치는 주의(奏議)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유몽인은 ‘웃으며’ 저승 시왕에게 바칠 호소문을 썼다고 하고서는 그 시작은 위와 같이 주의류(奏議類) 격식에 맞추어 엄숙하게 시작하여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sup>26)</sup>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러한 시작과는 판이하여 대조를 이룬다.

삼가 생각건대 대왕들께서는 여래의 좋으신 가르침을 좇아 따르시며, 제석(帝釋)의 위엄스런 명을 널리 퍼시며, 인간의 선악을 두루 살피시어 죄와 복을 평등하게 처리하시니 무릇 천하의 인간과 귀신이 누가 감히 그 뜻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요사한 제 첩 애귀가 그 주인 정부인(貞夫人) 신씨(申氏)를 죽일 음모를 꾸며 사람 두골(頭骨)과 협골(脇骨), 족지골(足趾骨), 살랭이 두골(頭骨), 우마골(牛馬骨)로 귀신이 불도록 저주를 걸고, 사람 머리카락과 오곡(五穀) 섞은 것, 석류목(石榴木)을 묻고 살신목(殺神木)에 곤(坤) 자를 써두는 등 이루 다 쓸 수도 없는 온갖 잡된 요물들로 명례방(明禮坊) 주인집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다가 일이 발각되어 매질을 당하자 도망하였습니다. 제가 사랑을 단념하고 정을 억눌러 그를 좇아가 증도에 죽였으나 요사(妖邪)한 귀신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인은 저주에 걸려 100일째 앓아누워있으며, 늙은 여종 부금(孚琴)은 이로 인해 목숨이 끊어졌으며, 어린아이 만세(萬歲)는 반년이나 절름발이 풍을 맞고 있으며, 말 한 마리 개 두 마리가 서로 이어 죽었습니다.<sup>27)</sup>

25) “有明朝鮮國，竭忠盡誠，衛聖功臣，嘉義大夫，前吏曹參判，時兼同知，成均館事，藝文館提學，承文院提調，校書館提調，奉常寺提調，歸厚署提調，書籍都監提調，忠勳府堂上，瀛陽君柳夢寅，敢告于十王諸大王。”(위의 책, 59~60면)

26) 실제 유몽인이 지은 상소문에서 인용문과 같이 자신의 직책을 열거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27) “恭惟大王，事遵如來善教，廣宣帝釋威命，普察人間之善惡，以平等罪福，凡厥天下人神，孰敢越厥旨茲者？有妖妾愛介，謀殺其主貞夫人申氏，咀呪請魅人頭骨脇骨足趾骨，狸頭骨牛馬骨，又

작가는 불도(佛道)의 밝은 법을 높인 뒤 자신의 집에 일어난 일을 일일이 나열한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나치게 비속하면서도 자세하여 앞서 나타난 주의(奏議) 형식과는 불균형을 일으켜 다시금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주소(奏疏) 문체의 특징은 그 엄격함과 간결함, 논리성에 있다. ‘장중하고 응혼하며, 전아하고 청징(淸澄)하며, 분명하고 명쾌하며, 사리에 적절하고, 분명하면서도 친박하지 않은’ 주의류 산문의 특징과는 판이하게도,<sup>28)</sup> 위에서 ‘애귀’의 참상을 고발하는 내용은 너무도 장황하고 비속하다. 작가는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인간의 각종 뼈 부위, 각종 동물의 뼈 부위를 열거해 가면서 당시 풍속에서 다른 이를 저주하는 방식을 끌고 온다. 그 뒤 집안의 문제를 열거하는데, 귀신의 작화로 인해 그의 처에서부터 비복(婢僕), 가족까지 피해를 입은 양상을 다시 열거적으로 제시하면서 상소문의 내용을 개인적인 신세 한탄의 수준에 그치게 한다. 즉, 처음 시작은 상소문을 표방하되 곧장 내용과 형식을 전환하여 그 엄숙하고 간결한 특징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상소문 형식을 패러디하는 것이다.

그가 시왕에게 자신의 바람을 피력하는 다음의 대목은 더욱 우스꽝스러운 정조를 자아낸다.

엎드려 바라옵나이다. … 이끌어 달래도 폐약을 징계하지 못하신다면 사나운 저승사자에게 엄히 명하시어 소머리, 말얼굴, 표범 바지를 입은 자들로 하여금 애개와 전계원(全桂元), 홍운(洪潤), 강진룡(姜震龍), 박룡(朴龍) 종해(宗海), 응량(應良), 응열(應悅), 김상(金尙), 남두행(南斗行), 원말종(元末從), 천리동(千里同) 막석(莫石), 여인 춘경(春卿), 춘향(春香), 무녀 옥개(玉介) 할미 및 나머지 잡색귀(雜色鬼)로서 이름 모를 자를 빨리 잡아서 모조리 죽여없애소서. 또한 요병(妖兵)으로서 칼잡이[劍手] 포수(砲手) 삼지창잡이들이나 요귀(妖鬼)를 위해 길을 치우고 행악(行樂)을 울리며 행차를 호위하고 수레를 끄는 귀신들은 혹 아비(阿鼻)지옥에 가두고 혹 무쇠 성곽[金城鐵郭]에 감금시켜, 칼산[刀山]과 불가마 탕[火湯],

埋人髮和五穀石榴木，書殺神木坤字 凡雜妖物不可盡記，以濁亂明禮坊主家，事覺秋梛而處，余割愛忍情，追殺之，中路而妖孽未殄，貞夫人傷於咀魔，十溯沈痼，老婢孀今，因此殞命，小兒萬歲，半年風痿，一馬兩犬，相繼殞折。”(柳夢寅, 앞의 책, 60면)

28) 이상 주의류 산문의 특징에 대해서는 신두환, 「“상소문”의 문예미학 탐색」, 『한국한문학연구』 제33집, 한국한문학회, 2004)의 27면 참조.

저미고 갈기[剝磨], 뱀과 전갈[蛇蝎], 범과 표범[虎豹], 아비(阿鼻)의 형벌을 차례대로 두루 거행하되 엄혹하고 무자비함을 다해 주십시오.<sup>29)</sup>

위의 인용문은 세 번째 호소문의 일부로서 시왕에게 부탁하여 저승사자로 하여금 ‘소머리’, ‘말얼굴’, ‘표범 잠방이 입은’ 이들을 소환하여 각종 잡귀를 잡아 죽인 뒤 저승의 온갖 형벌을 내려달라고 애원하는 부분이다. ‘소머리’나 ‘말얼굴’은 탕화에도 종종 발견되는 불교의 나찰 모습이며, ‘표범 잠방이’는 야차의 차림새다. 작가는 호소문에 ‘나찰’과 ‘야차’라 하지 않고 이들의 생김새를 언급하면서 각종 귀신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제시한 뒤, 자신이 주벌하고자 하는 대상의 이름을 또다시 일일이 열거하고 이들의 행태를 과장적으로 나열한다. 이를 통해 절제된 미학을 추구하는 상소문 형식에는 다시 파격이 일어난다. 더구나 작가는 귀신들에게 내릴 형벌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 형벌은 불교의 각종 지옥을 형용하고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끔찍한 것들로서 호소문에서 도덕적 우위를 주장해야 할 화자는 이런 사대부로서의 체모와 도덕적 권위를 잃은 채 스스로마저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다. 귀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을 이런 방식으로 간절히 저주하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글에 드러내는 방식은 보통 주의류 산문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양식에서도 잘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여러 차례 상소를 올리는데도 귀신은 여전히 퇴치되지 않고 계속 나타나고 있어 이 점에서 주의류 산문, 그리고 신에게 올리는 상소문의 권위나 엄숙성은 다분히 약화되고 있다.

이처럼 장중하고 전아한 유교-사대부의 문체·형식에 비속한 민중의 생활 주변 현실과 민속 불교의 노골적인 원망과 정서·내용을 담은 이 패러디가 겨누는 미적·정서적 효과는 복합적이다. 한편으로 지배층의 전아한 장르의 권위와 엄숙성을 범속한 민(民)의 생활 현실과 민속적 정서로 무력화하고 깨뜨리면서 지배체제와 권력이 권위를 잃고 있는 현실의 부조리를

29) “嚴勅猛使, 使牛頭馬面豹禪者 承投愛介、全桂元、洪潤、姜震龍、朴龍宗海、應良、應悅、金尙、金尙、元末從、元末從莫石、女人春卿、春香、巫女春香、祖母及餘諸色鬼, 不知名者, 殲殘之, 又捕妖兵劍手砲手三枝槍手, 爲妖鬼清路張樂護行羈鞫之鬼, 或囚之阿鼻地獄, 或幽之金城鐵郭刀山火湯, 剝磨蛇蝎虎豹阿鼻之形, 次第周舉極其嚴慘.” (위의 책, 61면)

드러낸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무속과 습합하며 민중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민속 불교의 허황함을 비웃으며 무력한 민(民)으로서 성취하기 어려운 정치적 소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허탈한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애귀전」은 기존의 상소문 뿐 아니라 향간에 떠돌던 축귀담에도 일정한 변주를 가하여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삼소문일사기」는 ‘소시왕문’에 미쳐 담지 못한 귀신의 작화와 이를 물리치려는 인간의 노력을 반복·나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분량이 상당히 길어 이 작품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그런데 이 「삼소문일사기」에 기록된, ‘귀신의 작화와 인간의 축귀’ 부분은 17세기 유행하던 귀신담을 끌어오되 이를 비틀어 패러디한 면모를 보인다. 제2장에서 서술했듯이, 17세기 이후 귀신담은 일상에서 귀신에 대응하는 인간의 다채로운 방식을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그 중 축귀법(逐鬼法)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는 귀신담, 즉 축귀담은 대체로 귀신 세계나 민속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삼소문일사기」에서는 수많은 ‘축귀담’을 번갈아 가며 제시하되 기존의 축귀담에 변주를 가한다.

㉠ 다음날 계원이 오자 약(淪)이 또 칼을 휘둘러 계원을 찍어 베니 이마가 부서지고 고혈(膏血)이 흘렀습니다. 약이 『원각경』(圓覺經)을 읽으니 계원은 이마를 싸매고 와 들으며 한 귀신이 전창(傳唱)을 하고 한 귀신은 붓을 잡고 비단 종이에 옮겨 써 간직하도록 해서는 떠나갔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명부에서는 불경을 중히 여겨 강(講)을 잘하는 자가 고관을 얻는다고 합니다.<sup>30)</sup>

㉡ 금강산 중으로 운인(雲印)이란 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귀신의 화(禍)를 그치게 할 수 있다 하여 병든 집안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밤에 산 위에 음식을 차려 늘어놓고 제단 세 개를 설치하여 제를 드렸는데 하단에 차려놓은 쌀 한 그릇, 떡 두 그릇, 밥 한 그릇이 비며 음식이 없어졌습니다. 애개가 옥개에게 말했다.

“나는 생시에도 중을 두려워했는데 죽고 나서 어찌 중의 밥을 먹겠는가? 그릇 위에 똥을 누고 왔다.”<sup>31)</sup>

30) “翌日，繼元來，淪又揮劍斫繼元，額破流血。淪讀圓覺經，繼元裹額來聽。使一鬼傳唱其經，一鬼操筆謄書，藏諸錦褚而去。問之，則曰：‘冥府重佛經，善講者得高官。’”(柳夢寅, 앞의 책, 67면)

31) “有金剛山僧雲印，自言能已鬼祟，病家人聽其言，夜陳施食于山上，設三壇以享之，下壇所陳米一器餅一器飯一器，空無飯，又如之。愛介謂玉介曰：‘吾生時猶畏僧，死豈食僧飯？加糞其上而來

인용문 ㉠은 『원각경』을 읽어 귀신을 축귀하고자 하는 장면이다. 조선후기 귀신담에는 불경이나 도교 경전을 읽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다수 있는데, 이 대목은 그러한 이야기를 차용하되 그 양상을 완전히 비틀어놓고 있다. 귀신들은 불경 외는 소리를 듣고는 도망하기는커녕 전창(傳唱)하고 받아 적는 양태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작가는 저승에서 고관(高官)에 오르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덧붙여 다시 웃음을 자아낸다.

인용문 ㉡ 역시 조선후기 귀신담 가운데 제(祭)에서 귀신을 충분히 대접함으로써 축귀하는 이야기를 희작적으로 비틀어놓은 것이다. 귀신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은 귀신을 부릴 줄 안다고 자칭하는 금강산 승려의 말을 믿고 제를 올리는데, 그다음 장면은 귀신이 음식을 다 먹어치운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언뜻 귀신은 만족하고 돌아간 듯해 보인다. 조선후기 귀신의 양태를 서술한 귀신담 가운데 귀신이 음식을 요구하거나 섭취하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은 그러한 귀신담을 서사에 끌어온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애귀는 ‘생시에도 중을 두려워했는데 죽고 나서 중의 밥을 먹겠는가’라며 그 그릇에 똥을 싸고 왔다고 한다. 당대 유행하던 ‘음식 대접으로 귀신을 만족시키는’ 귀신담 유형은 애귀의 이 대사와 함께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애귀전」은 상소문 형식을 패러디할 뿐 아니라 당대 유행하던 귀신담도 변주함으로써 희작적인 태도 속에 해학적·풍자적 어조와 함께 유쾌한 기조를 띠게 된다.

## 2. 귀신의 우의적 형상화

상술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애귀전」의 작가는 귀신에 당대 특정한 인간군상을 우의하여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확인했듯이 이 무렵 귀신담은 특정 인간군상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어우야담에서 그러한 양상을 확인하였는데, 유몽인은 당대 귀신담이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점에 포착하여 좀 더 ‘자각적’으로 귀신 형상에 자신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이들을

투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애귀가 누구를 우의적으로 형상화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 속 애귀의 형상에는 일반적인 귀신담에서 포착되는 원귀의 특징, 즉 그 사인(死因)에 현실의 부조리나 횡포가 개입되어 독자로 하여금 연민을 자아내는 속성이 보이지 않는다. 애귀는 정실부인을 살해하고자 하였는데, 작가가 누누이 언급하듯이 이렇게 ‘참형을 받아야 마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이 귀신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아 올바른 천도(天道)의 존재를 의심하게 한다. 즉, 무도한 악인으로 형상화되어 온갖 작화를 부리는 ‘애귀’의 존재는 서사 내에서 다소 개연성이 떨어지므로 작품 밖의 실제 현실세계의 어떤 존재를 암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는 것이다. 그 단서는 『광해군일기』의 다음 기록에서 발견된다.

㉠ 죄인 복동(福同)을 형조와 좌우 포도청이 함께 추국하였는데, 지금 무녀 막개(莫介)의 공초에 ‘궐하(闕下)의 저주는 무녀 애개(愛介)가 한 것이다.’ 하였습니 다. 그리하여 애개를 추국하자 단서가 드러났으니, 이는 바로 반역에 관계되는 사건입니다. 예조 판서 이이침이 아뢰었다.

“지금 형조의 계사(啓辭)를 보니, 요망한 적 복동이 ‘저주한 물건이 아직 궐내에 있는데 그것을 다 파낼 수 있으며, 내전(內殿)의 증상도 기도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만약 효험이 없으면 나를 죽여도 좋다고 말했다 합니다.<sup>32)</sup>

㉡ 이때 궁첩(宮妾)이 매우 많았고, 그 중에 상궁 김씨가 우두머리였는데, 왕비를 가장 심하게 투기하여 원수처럼 대하였다. 그러다가 궁중에 저주가 크게 일어나 흉악한 물건이 침실에 가득었다. 왕비가 병이 들자 의원은 사악한 귀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왕은 범인을 찾아내어 처벌하지 못하였다. 궁첩들이 간혹 서로 들추어내어 내정이 온통 싸움으로 가득했지만, 왕은 그 즐거움을 잃지 않으려고 모두 묵인해 주었다. 복동이라는 자는 요사스러운 무당인데,

32) “罪人福同因政院啓辭, 刑曹、左右捕盜廳眼同推鞠矣。今者巫女莫介招內, ‘闕下咀呪之事, 巫女愛介爲之云, 而推問愛介, 則已出端緒, 是乃逆獄也。禮曹判書李爾瞻啓: 今見刑曹啓辭, 妖賊福同自言: ‘咀呪之物, 尙在闕中, 盡可搆取, 內殿證候, 亦可祈禱平復。若無效則殺我爲當’云。”(『光海君日記』 1618년 12월 16일 조)

저주를 잘 다룬다고 자칭하면서 여염에 드나들며 속임수로 사람을 현혹하였다. 간혹 남에게 흉한 것을 하도록 시킨 다음 자기가 들추어내고는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끌어대는 방법을 써서 원한을 갚고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민간에서도 의심을 해왔었는데, 헌부가 비밀히 체포하여 가두었다.<sup>33)</sup>

인용문 ㉠은 무오년(戊午年, 1618) 12월의 기록으로, 광해군의 중전 유씨(柳氏)에게 무당이 저주를 걸었던 일이 밝혀진 대목이다. 인용문 가운데 무당 복동의 말로 미루어보아 중전 유씨는 당시 병이 들어 앓아누웠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애개’는 광해군의 중전 유씨(柳氏)에게 저주를 걸어 병을 유발한 무당의 이름으로서 공유몽인의 첩으로 등장한 ‘애개’와 이름이 같으며, ‘흉악한 물건을 묻은’ 저주의 방식도 「애귀전」에서 애개가 유몽인의 부인에게 행했던 것과 동일하다. 더욱 공교로운 것은 애개가 중전 유씨에게 저주를 건 것은 1618년 11월인데,<sup>34)</sup> 「애귀전」에서 유몽인의 본처가 앓기 시작한 것도 1618년 11월로 처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작품 내 애개의 저주로 정실부인이 병들었다는 상황은, 당시 쫓겨간 사건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실록 속의 ‘애개’는 무당으로서 중전 유씨를 투기한 장본인은 아니다. 그렇다면 「애귀전」의 애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어진 것일까? ㉡의 기록을 미루어 보건대 ‘애개’의 형상에는 광해군 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상궁 김씨(尙宮 金氏)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상궁 김씨의 이름은 ‘김개시’(金介屎, ?~1623)로서 선조(宣祖)의 총애를 받았으며 광해군에게도 총애를 받아 이이첨(李爾瞻)과 결탁하며 궁중에서 온갖 권세와 작란을 부렸다. 「애귀전」에서 정실부인을 투기하여 저주로 병들게 한 애개는, 중전을 몹시 투기하여 저주를 걸어 그를 병들게 한 상궁 김씨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또한, 애개는 죽은 뒤 귀신이 되어 유몽인의 아들 유약 첩

33) “時, 宮妾甚衆, 而尙宮金氏爲之冠, 妬忌王妃最甚, 各相仇怨. 俄而宮中詛呪大起, 兇穢之物徧滿寢室, 王妃有疾, 醫言邪祟所中, 王不能辨治其人. 宮妾或相發覺, 鬪訟盈內廷, 王不欲失其歡, 竝容之. 有福同者, 妖巫也. 本陰陽具備人, 或爲巫, 或爲覘, 自稱善治詛呪, 出入閭家, 變幻惑, 或自教人行兇而仍發之, 誣指他人, 報怨取利. 民間亦疑之, 憲府密捕囚之.”(『光海君日記』 1618년 12월 12일 조)

34) “此咀呪之變, 出於前月初旬間.”(위의 글)

박씨(朴氏)의 몸을 점거하여 작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공교롭게도 김개시는 광해군의 세자빈 박씨(朴氏)가 입궁한 뒤 세력이 커지자 이이첨과 결탁하여 세자빈 박씨 및 그 집안을 견제한 바 있다.<sup>35)</sup>

비단 위와 같은 정황 근거뿐 아니라, 유몽인이 그려내는 애귀의 작태나 형상은 당대 김개시에 대한 기록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유몽인에 의하면 애개는 평소 ‘충명하고 그를 잘 보필하였으며 분수를 잘 아는 듯하여 그 불측한 마음을 짐작도 못할 만큼 훌륭한 첩이었다. 그런데 김개시 또한 놀왕에 대한 충심을 강조하고, 분수를 알고 겸손한 이처럼 행동했으며 겉으로는 중전을 섬기면서 몰래 그를 저주하였다고 한다.<sup>36)</sup> 또한, 김상궁은 이이첨과 결탁하여 광해군 집권 당시 인목대비 폐모론에 힘을 실었는데, 다른 상궁들과 결탁하거나 궁녀에게 힘을 행사하여 대비전을 고립시킨 일화가 『계축일기』(癸丑日記)에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애귀는 유독 집안의 여성들에게 붙어 이들을 미혹하거나 병들게 하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당대 김상궁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러므로 서사의 중심인물인 ‘애귀’의 형상은, 애초 당대 궐내 최고의 권력을 휘행했던 상궁의 면면을 투사한 것으로서 이 작품에는 유몽인의 풍자적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음이 확인된다. 물론, 유몽인은 이 작품에서 비단 주인공인 애귀만을 회화화시키지 않는다. 아래 인용문은 「애귀전」에 기록된 다른 귀신들의 모습을 제시한 것이다.

대낮에 사람에게 요망한 짓을 하는 것이 살았을 때보다 심했다. 올 7월에는 나의 아들 ㄱ(瀾)의 첩 상주(尙州) 박씨(朴氏)가 애개의 머리쓰개를 쓰고서 용산(龍山) 집에서 오는 길에 가슴에 병이 들어 심장을 부둥켜안고 돌아왔다. 애개는 자줏빛 저고리를 머리에 써서 어떤 귀신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는 남자 귀신 유득봉(柳得朋)과 함께 박씨에게 들어와 때로 그 머리를 때리고 때로 가슴을 차

35) “金尙宮名介屎，年壯而貌不揚，兇黠多巧計，以春宮舊侍女，因王妃得進御，仍以祕方驟幸，後宮無與爲伍，遂與王妃却矣。世子嬪朴氏之入也，爾瞻與趙國弼，密白王選之。及嬪入而承宗，自與，以親父，祖，得寵於王與柳希奮，挾勢傾爾瞻，爾瞻大恨，乃以厚禮，交結尙宮之父，通于尙宮。”(『광해군일기』 1613년 8월 11일조)

36) “其志氣、言論、與爾瞻略相似，常慷慨以討逆自任，一也。爲尙宮不求進號，以便出入而外示退讓，與爾瞻常主朝論，而不居銓台，外示廉靜者，二也。曲意事中殿，而內實傾毀，凡咀呪悖逆之事，皆自爲而推於異己，反以誅討爲功，三也。”(위의 글)

땅에 거꾸러뜨렸다. … 이로부터 격일로, 혹은 연일로 말에 안장을 지운 말과 종들이 문 앞뜰에 가득하였다. 애개는 이렇게 말했다.

“박씨가 남편에게 소박맞는 것이 불쌍해서 이조좌랑 전계원(全繼元)에게 증매를 서야겠다.”

그리고서 전계원을 데리고 오는데 나이가 서른 남짓에 용모가 멋진 장부였다. … 하루는 계원이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자 집안사람들이 쫓아냈습니다. 계원은 엎어져 이마가 깨졌다. 흉터 딱지가 다 벗겨져 흐르는 피가 면상을 덮은 채 도망하며 말했다.

“박씨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애개 말을 따를 때마다 헛수고하며 욕만 보는구나!”<sup>37)</sup>

위의 인용문은 애귀가 함께 다니는 귀신인 유득봉과 전계원 귀신의 작화를 보여준다. 애개 귀신은 집안의 여성들에게 빙의하거나 병을 일으키지만, 정작 그 자신은 항상 남성 귀신들과 어울려 다니며 문제를 일으킨다. 인용문의 처음 부분에서는 ‘유득봉’ 귀신이 나타난다. 그는 애귀와 함께 나타나 ‘대낮에 요망한 짓’을 하고 애꽃은 유몽인의 며느리 박씨에게 빙의한다. 이 ‘유득봉’ 귀신은 언뜻 발음에서 세자빈 박씨와 결탁한 광해군의 외척 유희분(柳希奮)을 연상시키기도 하나 확실치는 않다. 단, 유득봉 귀신이 서사의 말미에 귀신 무리에서 배척당하자 유몽인에게 글을 얻어 귀신들로부터 도망한 일화를 통해 이 ‘유득봉’이라는 인물이 당대 김상궁이나 이이첨과 결탁하다가 추후 갈라져나온 인물인 우의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는 박씨가 남의 소실임을 알면서도 애귀만 믿고 태연히 그를 범하려 하는 전계원 귀신 또한 제시된다. 전계원 귀신은 애귀가 따로 데려온 귀신으로서 이조좌랑이었다는 허풍을 떠는 귀신이다. 그런데 이 귀신은 몰래 울타리를 뚫고 남의 집 소실을 범하려 하는바 초월적 권능은 없는

37) “白日作妖於人，甚於生時。今年七月，迷兒淪，有小妾，尙州朴姓者，着愛介巾幘，自龍山移家中路，病胸捧心而歸。愛介以紫衣蒙頭，使人不識何鬼，與男鬼柳得朋偕入，或擊其頭，或蹴其胸，僵伏於地。…自此，卽全繼元’引繼元來，年可三十餘，美容顏丈夫也。…一日，繼元穿籬而入，家人逐之，繼元顛覆，破額癩底盡脫，流血被面而遁曰：‘不見朴面目，而每聽愛介言虛勞見辱。’”(위의 책, 66~68면)

존재로 보이며, 그 욕망하는 바도 여색(女色)을 탐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세속적 욕망과 다름이 없다. 특히 그는 울타리를 뚫고 박씨를 찾았다가 유몽인 집의 가솔들에게 쫓겨나 그만 얼어지는데, 온 얼굴이 피로 뒤덮여 도망하면서도 애귀에게 속아 헛수고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낸다.

이와 같이 우스꽝스럽게 묘사된 전계원 귀신은 일견 남의 소설을 뻔뻔하게 꺾탈하려는 인간 타입의 모습을 풍자하지만, 애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 정체를 좀 더 좁혀보자면 당대 상궁 김씨에게 빌붙고 아침한 이들을 풍자한 것이 아닌가 한다. 상궁 김씨는 당시 권력을 휘행하였으므로 이이첨(李爾瞻)을 비롯한 온갖 벼슬아치와 친한 이들이 그와 영합했는데, 전계원은 이렇듯 김상궁에게 빌붙어 듣는 뻔뻔하고 천박한 인간을 우의적으로 빗댄 것이 아닌가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서사에서 다소 갑작스럽게 제시되었다 해도 ‘전계원(全桂元), 유득봉(柳得朋), 홍윤(洪潤), 강진룡(姜震龍), 박종해(朴宗海), 응량(應良), 응열(應悅), 김상(金尙), 원말종(元末從), 남두행(南斗行), 춘경(春卿), 춘향(春香), 김선(金善), 성춘(成春)’과 같은 귀신들은 당대의 권간(權奸)이나 이들에게 충성하는 무리들의 이름을 교묘하게 바꾸어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한다. 예컨대 ‘원말종’은 폐모론을 주장했던 ‘원종(元宗)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무렵 광해조 조정에 대한 풍자나 우의를 담은 글은 당대 권신들에 의해 철저히 검열되고 해당 작가는 벌을 받았으므로<sup>38)</sup> 귀신의 이름이나 형상에서 실존 인물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리하여 유몽인은, 자기 집안의 일이라고 하면서 집안사람들 실명을 섞어가며 거론하되 허구의 인물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당대의 간신에 우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 우의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당시 부패한 조정의 특정 인물 뿐 아니라 무인이나 문인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인간들이기도 하다.

38) 조우인(1561~1625)은 1621년에 황폐한 고궁(故宮)을 보고 감회시 한 편을 지어 광해군의 잘못을 풍자하였다가 필화를 입어 3년간 옥고를 치렀다. 유몽인 자신도 「상부사」를 지었다가 필화를 당하였다.

약(淪)이 또 『손자』(孫子)를 읽으면 귀신들이 겁에 질려 낮빛이 변하여 차츰 도망가는지라 또 혜(惠)에게 방법을 읽게 하니 무귀(武鬼)가 말했다. “이는 내가 일찍이 읽어본 책일세.” 유귀(儒鬼)가 “자네가 읽은 게 얼마나 되나?” 하자 “그저 몇 장 읽었네” 한다. “자네들은 그저 종이 몇 장 읽고서 무관 장군이 되려 하는가?” 하니 무귀는, “자네는 유학을 하면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나?” 한다. 귀신들이 모두 웃었다.<sup>39)</sup>

위의 인용문은 유몽인의 아들 유약이 귀신을 퇴출하기 위해 『손자병법』을 읽자 그 소리를 들은 무인(武人) 귀신과 문인(文人) 귀신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다. 이 이야기는 전체 서사와 큰 관련 없이 인입된 부분인데, 여기 나타난 문무(文武) 양반 귀신의 형상에서도 귀신의 초월적 속성은 조금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저 자신의 처지를 자랑스럽게 여겨 서로를 헐뜯는 인간의 면모가 드러난다. 무인 귀신은 『손자』를 들고 자신이 좀 읽어본 글이라 과시하고, 이 모습을 본 문인 귀신은 무인이 글을 얼마나 읽었겠냐고 비꼬며, 이에 다시 무인 귀신은 발끈하여 문인이 무슨 큰일을 하겠냐고 공격한다. 이들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 무인과 문인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고 보인다.<sup>40)</sup>

이상 「애귀전」이 다양한 문학 양식을 비트는 방식, 그리고 귀신의 형상을 통해 당대 인간군상을 우의하는 방식으로 축조되는 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이에 더하여, 이 글이 유몽인 자신의 신변 일사를 기술하는 글의 형식을 취하면서 특이하게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전언(傳言)으로 들은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적시하고자 한다.

앞서 살폈듯이 총 5단락으로 이루어진 이 글의 제1단락은 유몽인이 사건의 경계를 진술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제2단락인 상소문은 유몽인 자신이 그 억울함을 성토했다는 것으로서 작가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겠

39) “淪又讀孫子，諸鬼色變秒秒亡去。又令惠讀孫子。武歸曰：‘是吾所曾讀者。’有儒鬼曰：‘若所讀幾何?’ 曰：‘只讀數張。’儒鬼曰：‘若只讀數紙，欲爲武將軍乎?’ 武鬼曰：‘你爲儒能成何事。’諸鬼皆大笑。”(위의 책, 76면)

40) 이상 「애귀전」의 귀신이 우의하는 대상과 그 특질에 대해서는 정솔미, 앞의 논문(2021, 263~267면)을 상당 부분 참조하되 그 논의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다. 그런데 제3단락과 제4락, 즉 제2상소문과 제3상소문은 ‘귀신말을 전하는 여자의 입’을 통해 그간의 귀신이 일으킨 작화를 서술하고 있다. 즉, 여기 제시되는 귀신의 작화는 유몽인 자신이 체험한 일이 아니라 남의 말을 통해 들은 전문(傳聞)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한편, 제5단락 즉 ‘삼소문일사기’에서도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만 유몽인이 직접 귀신을 만나고서 그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화도 실려 있다.

또한, 이 글은 작가의 전문을 재구성한 애귀 중심의 진행하다가도 중간 중간 작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도 한다. 앞서 검토한 상소문에서 그러한 흔적이 발견되는 것은 자연스럽거나, 그렇지 않은 ‘삼소문일사기’는 주로 사건 위주로 이야기를 개진시키다가 갑자기 작가의 내면·사상이 불쑥 들어가 있기도 하다. 이 목소리는 작가의 삶을 투영하면서도 서사와 긴결되어 출현하는바 ‘서사적 자아’라고 칭할 수 있다.<sup>41)</sup> 더구나, 출현하는 귀신들이 스스로 발화하는 장면이 많아 다채로운 귀신의 목소리도 혼합되어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애귀전」에는 사건을 전하는 다양한 인물의 언어와 작가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어가 있으므로 이 작품을 유몽인의 ‘체험담’으로 보기보다는 창조적 허구 작품으로 보는 쪽이 옳지 않은가 한다.

#### IV. 「애귀전」의 창작 의도와 주제의식

##### 1.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비판과 기롱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애귀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작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허구적 각색이 일어난 서사 작품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소설로 볼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즉, 작가 유몽인은 기존 문학양식의 패러디를 통해 작품에 풍자적이고 희학적 분위기를 가하고, 작품의 중심인물로 기능하는 귀신과 그 주변의 몇몇 귀신이 우

41) ‘서사적 자아’에 대해서는 정솔미, 「장한철(張漢喆) 『표해록(漂海錄)』의 야담적 전이 양상 『기리총화(綺里叢話)』와 『청구야담(靑邱野談)』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67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8(260~262면)을 참조.

의하는 바가 누구인지 간접적으로 암시하면서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애귀전」은 정통 필기의 관습과 지향에서 이탈하여 적극적으로 소설화된 작품임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창작 의도와 주제의식은 무엇인가?

상술했듯이 이 작품에는 문면상으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게 처리된 부분도 많다. 귀신의 이름이 누구인지 모를 이로 처리된 것도 많고 다채롭게 등장하는 귀신의 형상들은 당대 조정 상황을 잘 아는 이 또는 유몽인 자신이 아니라면 무엇을 우의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논의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애귀전」에는, 일차적으로 애개로 표상되는 김상궁과 그와 어울리는 귀신 무리를 통해 당대 조정의 권간(權奸)을 풍자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의식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학적 필치와 우의적 형상화 방식을 통해 당대 부조리한 조정의 상황이 비판되고 기롱되는 것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 귀신들은 대개 추하고 천하며 속된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이를 물리치고자 하는 인간, 즉 유몽인과 그 아들 유약은 정의롭고 공정한 이들로 형상화되어 유몽인이 기롱하고자 하는 조정의 간신들은 매우 우스꽝스럽게 기롱되고 있다.

다만, 이렇듯 민감한 주제의식은 다소 은유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우리는 작품의 문면에 종종 노출되는 일인칭 화자의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화자 유몽인은 서사의 중간에 투입하여 당시 처했던 처지에 대한 의식을 드러내거나 애개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므로, 이 대목에 유의하면 그가 비판하고 기롱하고자 하는 부조리한 대상에 대한 상(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잡히게 된다.

죄가 인륜의 기강을 흔들 만하지만 바로 풀어준 것은 부인을 만약 끝내 구하지 못하게 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조정에서 그 죄를 다스릴 때면 무고한 자가 먼저 죽을 수 있어서이다. 결코 사정(私情) 때문에 사형에 처할 죄수를 놓아 주어서는 안 된다.<sup>42)</sup>

42) “罪極倫紀而徑釋之，夫人若終不救，悔莫之及，朝家治厥罪，無辜者先死，決不可緣私情放大辟。”(앞의 글, 57면)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두 가지다. 우선, 애개, 즉 정부인을 저주한 죄는 인륜의 기강을 흔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굳이 이 사건이 조정에서 일어났을 때를 가정하는 점이다. 이처럼 애귀의 작란에 대해 인륜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말, 그리고 이러한 일이 조정에서 일어났을 경우에 대한 생각이 「애귀전」의 곳곳에 발견된다. 그는, ‘국전(國典)으로 말하자면 그 죄는 오체(五體)를 찢고 머리를 길거리에 걸며 연좌가 부모에게까지 미침이 마땅하나 사가(私家)의 별은 가벼워 다만 종과 주인간의 분수에 의거해 형벌을 대략 내렸다’거나, ‘여종이면서 주인을 해침은 신하로서 군부(君父)를 시해함과 다를 바 없다’는 언술을 통해 비복이 주인을 저주하는 일이 역모와 동궐에 놓여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즉, 유몽인은 ‘참람하게 종으로서 주인을 해하려 한’ 사건 자체보다는 이 죄가 역모에 해당하므로 조정에서라면 반드시 주벌되어야 함을 주장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인을 해하려 하는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일차적으로는 당연히 광해군의 정부인을 저주한 김상궁을 떠올릴 수 있다. 상술했듯이 김상궁은 이이첨 일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조정을 문란하게 한 인물로서, 이들 일파가 여전히 득세하는 현실에 대한 기롱의식이 우선 이 작품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을 해하려 한 종’은 상술했듯이 역모죄에 걸리는 것으로 서술되며, 유몽인의 정치적 굴절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인물은 자연스럽게 1618년 역모죄에 걸려 죽은 허균 또한 연상시킨다. 주지하듯이 유몽인은 1618년 「백주시」(柏舟詩)를 지었다가 인목대비의 폐모를 주장한 이이첨과 허균에게 노여움을 사 파직되었는데, 허균은 얼마 후 역모죄에 걸려 죽었다.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하겠지만, 「애귀전」에는 이 사건에 대한 소회가 중간에 인입된다. 즉, 「애귀전」에는 유몽인이 스스로 자신이 견책을 받은 것은 한낱 작은 시에서 시작된 것인데, 몇 달이 안 되어 ‘노간(老嫗)은 머리가 베이고 반역의 무리는 사형을 당하여’ 그 영험(靈驗)함이 징험되었다는 서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후 맥락을 고려해볼 때 애귀의 죄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그 귀신의 형상에 비단 김상궁과 이이첨 일파 뿐 아니라 그 전에 죽임당한 허균과 같은 이에 대한 비판의식이 중첩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인다.

한편, 「애귀전」의 주요 구성 방식 중 하나인 ‘상소’는 유몽인의 비판의식을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장치가 되는데, 이 글에서 이 상소가 계속 잘 통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은, 부도덕한 귀신들이 도덕적인 유몽인과 그 집안을 괴롭히는 상황을 아무리 간절히 하소연하고 이들이 척결되어 올바른 세상이 도래하기를 아무리 간절히 간청해도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계의 부조리함을 비판하는 장치가 된다. 유몽인은 급기야 시왕을 비판하기에 이른다.

김상, 김선은 귀신 중 요독(妖毒)이 심한 자로 모습을 감추고 자취를 숨기며 간사를 제멋대로 부림이 자못 심하며, 성춘이란 자는 우리 며느리에게 다가붙어 달콤한 말과 쓴소리로 꼬이고 겁을 줍니다. 이는 모두 법과 기강을 두루 벗어난 것이니, 대왕의 엄하고 밝은 다스림이 기실 지옥의 강직지 못한 나졸의 사사로움을 행함을 과감히 관장하지 못해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사악한 귀신이 날뛰면서 염라대왕의 제재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sup>43)</sup>

위의 인용문에서 유몽인은 명부시왕을 넌지시 비판한다. ‘법과 기강을 벗어난’ 이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자명한데 이들이 횡행하는 것은 혹시 시왕의 탓은 아닌가? 즉, 이들이 사사로운 일을 행하는 것에 시왕이 혹 관장을 잘 못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 귀신들이 너무 강력하니 제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유몽인은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왕이 이들을 제어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유몽인의 간절한 촉구에도 시왕의 군졸들은 애귀를 완전히 통솔하지 못한다. 특히 작가가, 「소시왕문」을 세 차례 쓰자 귀신이 사라졌다며 자신의 글을 한유의 「악어문」에 비견하는 대목과 그다음 대목은 다음과 같이 병치되어 있어 귀신을 물리칠 방법이 도저히 없을 듯한 절망감을 자아낸다.

43) “金祥金善, 鬼中妖毒之甚者, 藏形匿迹, 肆愿頗苦, 成春者, 來逼我家婦, 甘言苦語誘之糊之, 是皆漏出法網梗, 大王嚴明之化, 實不敢知地獄不牢邏卒行私而然耶, 賊鬼跋扈, 不受閻羅之制而然耶?” (위의 글, 62면)

내가 글을 태워 신께 고한 후부터 뜰에 가득하고 집을 에워쌌던 수백 수천의 귀신이 일시에 연기 꺼지듯 몽땅 사라진 것이 어찌 그리도 기이하던지! 지난날 한퇴지(韓退之)가 <악어문(鱷魚文)>을 써서 악어들이 바다로 옮겨가자 사람들은 모두 문장의 기묘함이 불러온 효험이라 하였다. … 집안 자체가 글을 태워 귀신을 물리친 일로 친척 빈객과 지인들에게 자랑하더니, 그후 몇 달이 지나 애귀는 이를 미워하여 “너희들이 어찌 감히 내 말을 하느냐?” 하였다. 그때 집안에 제사가 있었는데 홀로 와 집 밖에서 다시 울부짖으며 “어찌 유독 나만 대접하지 않는고?” 하는데, 개가 으르렁거리며 짖자 애귀는 놀라 “엄마야!”하고 부르짖으며 달아났다.<sup>44)</sup>

유몽인은 자신의 글이 수백 수천의 귀신을 쫓아냈다고 기이하다 하며, 이 글을 「악어문」에 견주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자의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안의 자체들이 그 글의 영험함을 자랑하자 귀신은 몇 달 후 다시 나타나 감히 자신을 언급한다고 화를 낸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시왕에게 올리는 상소를 통해서가 그가 생각하는 부조리함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글 속의 정황은, 당시 조정을 부조리하게 장악한 권간(權奸)들의 참소에 의해 비참한 처지에 놓인 그 자신의 존재 여건을 상기킨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 ‘시왕’은 기실 광해군을 상징하며 유몽인은 <시왕상소문>을 통해 군주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성토했고, 왕이 간신들의 죄를 알아차려 이들을 강력히 제어해줄기를 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몽인의 간절한 상소에도 불구하고 애귀는 결코 퇴치되지 않고, 이에 작가는 시왕에게 호소하기를 포기하고 마침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귀신들에게 호소하기에 이른다. 그는 천지신명, 해와 달의 신, 북두성과 곤산의 신, 천부(天府) 명관(冥官), 천둥과 벼락의 신 풍용(豐隆)과 아향(阿香), 황하의 신 풍이(馮夷)와 태산의 신 견오(肩吾), 강물의 신 하백(河伯)과 도깨비불의 악귀 야중(野仲), 산의 괴수 기(夔)와 언덕의 괴물 신(峩), 남해의 신 속

44) “自余焚書告神之後，充庭繞屋數百千之鬼，一時烟消燼滅，何其異也？余之被譴，蓋出於一小詩，而曾未數月，老茲斫頭，逆黨死獄，其驗如影響。安知余之正。…一家子弟，以焚却鬼事，誇親賓舊識，後數月，愛鬼惡之曰：‘爾何敢言我？’時家有祀事，愛鬼獨來，乃復呼于屋外曰：‘何獨不享我？’有狗信猜而吠，愛鬼驚叫阿媽而去。”(柳夢寅, 앞의 책, 81~82면)

(儵), 북해의 신 흘(忽), 중앙의 신인 혼돈(混沌), 못 속의 이무기와 마른 쓰레기 더미 속의 벼락 귀신, 서북방 담장 귀퉁이 아래 일양(洗陽), 동북방 귀퉁이 아래 규룡(鯀) 귀신, 도랑 안의 진흙탕 물귀신, 부엌의 부뚜막 귀신, 문(門)의 신령과 호(戶)의 귀신, 마루와 안방 귀신·동남 서남 구석 귀신을 모두 부르며 제발 애귀를 쫓아내어 자신의 고초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다.

시왕에게 실컷 상소하다가 결국 온 세상에 존재하는 신을 부르는 이 대목은, 한편으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거니와 모든 종교와 사상을 막론하고 애귀가 끼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 줄 신령한 권능이라면 누구든 괜찮다는 자조적 인식이 드러난다. 더구나 이를 시정할 ‘시왕’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태도가 드러나기도 하는바, 이 이야기의 끝은 다시 돌아온 애귀가 ‘문신’(門神)에 의해 가로막혀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결국 애귀를 막은 것은 시왕이 아닌 다른 존재였다는 결말을 취하고 있어 아무리 성토해도 유몽인의 말과 상소가 잘 통하지 않는 광해군에 대한 마음이 이 작품에 던지시 드러나고 있다.

## 2. 굴절된 삶에의 분만(憤懣)과 자존의식

유몽인이 「애귀전」을 통해 당대 조정의 간악한 이들과 이들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광해에 대한 심정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애귀에 대한 서술 곳곳에는 그 자신의 굴절된 삶에 대한 울울함이 발견된다.

㉠ 이는 사소한 공덕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대로 날뛰게 놔두는 격이라 그 공덕이 그 죄악을 덮을 수 없는데도 캄캄 무지하여 인과응보를 살피지 못한다면, 석가여래의 교화가 가르침이 과연 어디 있다 하겠습니까? 하물며 몽인(夢寅)은 평생 불선(不善)한 업을 짓지 않고 수행(修行) 오도(悟道)에 많이 힘썼으니 어찌 애개의 한낱 가사(袈裟) 지은 작은 일 정도이겠습니까?<sup>45)</sup>

45) “是若因些少功德，任他恣睢，則其功德不足勝其罪惡，若無知冥冥不省緣果報應，則如來之教，果安哉？而況夢寅平生不作不善，多作修證，豈愛介一袈裟之微哉？”(앞의 글, 60면)

㉠ 비록 생시에 가사(袈裟)를 해 준 작은 공이 있다 하나 이는 모두 몽인의 재물을 빌려 자기의 공으로 삼은 것입니다. 몽인의 부인은 홀로 그 선보(善報)를 입지 못하고 있던 말입니까? 대저 선악에 인과응보(因果應報)가 있는 것은 씨를 뿌림에 수확이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부인은 일생 동안 자비로워 차마 자기 여종에 대해 형벌로 해를 가하지 못했는데도 한 해 동안 고질병에 시달리다 명이 조석에 달려 있고, 애개는 일심으로 악을 행하며 어진 주인을 죽이기를 꾀하며 무고한 하인들 여럿이 몹쓸 양화를 마구 입고 귀신이 마음속 뜻을 제멋대로 행하기에 이르렀는데도 벌하지 않으니, 오십 년 적선의 공이 한때 남의 힘을 빌린 작은 시혜보다 못하다 여기신 것입니까?<sup>46)</sup>

㉡ 몽인이 집안에 화근을 키운 것은 비록 이전에 실수한 것이나 마음은 바르고 입은 정직함을 겸하여 사(邪)됨이 없고, 아버지는 문(文)을 하고 아들은 무(武)를 하여 한 집안에 문을 경(經)으로 하고 무를 위(緯)로 삼는 것은 귀신도 삼가고 피하는 바입니다.<sup>47)</sup>

인용문 ㉠은 애귀가 생전에 가사 하나를 보시한 것이 지금 소멸되지 않는 이유라 하면서 자신의 신세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그가, 선업으로 닦은 자신의 삶이 이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대해 분만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인용문 ㉡에서도 부인과 함께 50년 적선의 보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항의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그가 평생 닦은 업적과 조정에서의 공들이 아무 것도 아닌 듯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조심스럽게 엿볼 수 있다. 인용문 ㉢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자신과 그 가문에 대한 자부심, 그러나 현재 굴절된 상황에 대한 우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유몽인은, 이 글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 놓인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지만은 않는다.

46) “雖曰生時有袈裟之微功，而是皆假夢寅之財，爲其功也，夢寅之夫人，獨未蒙其善報也？夫善惡之因果，猶耕種之穫，夫人一生慈悲，不忍刑害己之婢，而沈痼一歲命在朝暮，愛介一心作惡，謀殺賢主，及無辜之家人多縱，瘡鬼恣行胸臆而不知之罰，曾謂五十年積善之功，不及一時因人之小施乎？”(위의 글, 72면)

47) “夢人家畜禍本，雖失於前乘，心正直口無邪，父則以文，子則以武，一家之內經武緯，鬼神之所謹避。”(위의 글, 같은 면)

내가 글을 태워 신께 고한 후부터 뜰에 가득하고 집을 에워쌌던 수백 수천의 귀신이 일시에 연기 꺼지듯 남김없이 사라진 것은 어찌 그리도 기이하던지! 지난날 한퇴지(韓退之)가 <악어문(鱷魚文)>을 써서 악어들이 바다로 옮겨가자 사람들은 모두 문장의 기묘함이 불러온 효험이라 하였으나 나는 홀로 아니라고 생각한다. 퇴지의 <불골표(佛骨表)>가 비록 당시에는 위로 임금 뜻을 거스르고 아래로는 집권 대관의 비위를 건드려 조양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으나 그 당당하고 정직한 기상은 천지에 비끼고 귀신을 감동시킨 지 오래라, <악어문>에 이르러서는 비록 서리(胥吏)에게 초(草)를 하도록 하였으나 남해의 신이 부득이 두려워하며 쫓았다. 나처럼 글에 졸렬한 자로서는 어찌 능히 몇 편 문자로서 못 귀신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마는, 내가 견책을 받은 것은 대개 한낱 작은 시에서 시작된 것인데, 몇 달이 안 되어 노간(老姦)은 머리가 베이고 반역의 무리는 사형을 당하여 그 영험(靈驗)함이 그림자 메아리 같으니, 나의 정직한 기(氣)가 하늘에 가득 비끼어 귀신을 감동함이 퇴지의 불골표에 아래 처지지 않을 것임을 어찌 알랴?48)

그는 애초 이 글을 쓸 때부터 연산에서의 일화를 염두에 두면서 자공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위의 인용문과 같이 사대부로서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과 함께 자신의 문장에 큰 자부심을 드러낸다. 그는, 자신의 상소문이 귀신을 물리친 것을 두고 한유의 「악어문」과 동일하다는 남들의 평가를 가져오는가 하면, 스스로 평하기를 이 글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날 자신이 지은 <상주시>가 한유의 <불골표>처럼 이미 하늘에 감응했음을 피력한다. 그러므로 이 글을 창작한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당대 권간들에 대한 경계를 전하고 자신의 자존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48) “余焚書告神之後，充庭繞屋數百千之鬼，一時燃燒盡滅，何其異也！昔韓退之作鱷魚文，鱷魚徒海，人皆曰：“文章之致之也。”余獨以爲比也。退之之佛骨表，雖當時上忤人君，下拂宰執，謫之於潮陽，而其堂堂正直之氣，橫天地感鬼神久矣，至於驅鱷之文，雖令吏胥草之，南海之神，不得懼而從之也。若余拙於文者，焉能以數篇文字格衆鬼乎？余之被謫，蓋出於一小詩而曾未數月，老姦斫頭，逆黨死獄，其驗如影響，安知余之正直之氣，橫天感鬼神，不下退之之佛骨表也歟！”(위의 글, 80~81년)

이상 본고는 장르를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에서, 「애귀전」이 필기에 연원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작가가 이 작품을 적극적으로 ‘소설화’하고자 했던 의도를 지녔음을 확인해 보았다. 이 작품은, 다채로운 귀신을 대거 등장시키고 작가와 매우 근접한 일인칭 화자를 내세운 점에서 소설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당대 조정을 ‘귀신의 소굴’로 그려냄으로써 당대 사회에 신랄한 풍자를 가한 문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사가 아닌 허구와 우의(寓意)를 짓들이고 전(傳)이나 필기(筆記)의 일반적인 서사 전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상소문 양식과 ‘일사기’(逸事記)를 조합하여 그 형식을 다채롭게 하였다. 단, 작가는 엄숙한 상소문 양식을 패러디하고 ‘일사’의 기록·서술에서는 재래하던 귀신담에 희극성과 농조(弄調)를 띤 다양한 변주를 가하는데, 이에 작품에는 희작적이고 유쾌한 기조가 감지된다. 그러나 기실 이 작품은 귀신에 빚대어 실존 인물 및 조정의 여러 권간(權姦)들을 우의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품의 내외적 정황에서 알 수 있듯이 ‘애개’는 당대 광해군의 총첩(寵妾) 김개시(金介屎)를, 그 주변의 남성 귀신들은 조정의 간신들을 우의한다. 한편, 귀신의 작화 사건은 유몽인의 ‘직접체험’이 아닌 그가 들은 ‘전문’에 의한 사건 서술로 진행된다. 이에 작품 전체의 서술 구조에는 노복, 여종, 집안사람들의 목소리가 혼합되며 한편으로는 서사적 자아인 작가 유몽인의 목소리 또한 공존하게 된다.

이러한 형식상의 파격을 통해 유몽인은 자각적으로든 아니든 한 편의 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는데, 그 창작의식의 기저에는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비판과 기롱이 있음이 발견된다. 그는 귀신의 괴기스런 형상을 통해 당시 조정이 권간(權奸)들에게 장악된 것을 비판하고 기롱하며, 시왕에게 아무리 상소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제시하면서 광해군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기탁한다. 또한, 그는 귀신을 비판하고 자신의 처지를 성토했던 과정에서 간신들에 의해 참소당해 굴절된 그 삶의 분만을 터뜨리고,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당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자존의식을 드러낸다.

상기한 논의를 통해 그간 유몽인의 신변 체험담 정도로 여겨지던 「애귀전」이 뚜렷한 창작의식을 갖고 지어진 작품임이 밝혀지고, 또 그 미학과 주제의식이 대강 드러났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글을 쓸 당시 유몽인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으므로 귀신과의 대화나 그 작태를 통해 사후 세계 모습을 상상적으로 그려보며, 영혼과 초월계의 실재성을 궁구하기도 하였다. 작품의 허구·창작적 성격이 아직 학계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실정에서 특히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미처 논의하지 못하고, 제한된 지면 속에 여러 논의가 소루하게 된 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설공찬전」을 계승하며 소설사에서 주목될 수 있는 작품인 만큼 앞으로 작품론과 함께 그 소설사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광해군일기』

유몽인, 신익철 외 편역, 『어우야담』, 돌베개, 2006,

\_\_\_\_\_, 국립중앙도서관본 『묵호고』

### 2. 단행본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_\_\_\_\_, 『한국고전소설 연구의 방법적 지평』, 알렙, 2019.

신익철, 『유몽인 산문 연구』, 보고서, 1998.

### 3. 논문

김홍백, 「유몽인의 經世 의식과 산문세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_\_\_\_\_, 「柳夢寅 文集에 대한 書誌의 고찰」, 『규장각』 제48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387~424면.

김희성, 「『어우야담』 귀신담 연구와 영문 번역」,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21.

신두환, 「“상소문”의 문예미학 탐색」, 『한국한문학연구』 제33집, 한국한문학회, 2004, 235~263면.

신익철, 「《默好稿》를 통해 본 《於于集》 편찬태도」, 『서지학보』 제10호, 한국서지학회, 1993, 3~26면.

윤혜신, 「『어우야담』 소재 귀신담의 트라우마(trauma)적 성격」, 『대동문화연구』 제6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227~262면.

이복규, 「『설공찬전』이 실화에서 유래한 소설일 가능성」, 『국제어문』 제28집, 국제어문학회, 2003, 67~84면.

이주영, 「조선 후기 筆記·野談 소재 鬼神談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_\_\_\_\_, 「『묵호고(默好稿)』 소재 ‘애귀(愛鬼) 이야기’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64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0, 113~151면.

정솔미, 「조선시대 흥가의 문학적 형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49집, 한국고전문학회, 2016, 169~205면.

\_\_\_\_\_, 「장한철(張漢喆) 『표해록(漂海錄)』의 야담적 전이 양상 『기리총화(綺里叢話)』와 『청구야담(靑邱野談)』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67호, 민족

문학사연구소, 2018, 260~262면.

정솔미, 「한국 문헌소재 귀신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70~267면.

정환국, 「17세기 이후 귀신이야기의 변모와 저승의 이미지」, 『고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99~128면.

조현설, 「16세기 일기문학에 나타난 사대부들의 신이담론과 소설사의 관계」, 『동악어

문학』 제51집, 동악어문학회, 2008, 260~285면.

## The Theme of Yu Mong-in's "Aeguijeon"(愛鬼傳) and its Fictional Composition

Chung, Sol-mi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form and subject of 'Aeguijeon'(愛鬼傳), from the perspective of viewing it as a fictional work by paying attention to the creative aspect of Yu Mong-in (1559-1623). The eventual goal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the literary and historical value of this work and expand understanding of Yu's life and literary world.

'Aeguijeon' has not been well known so far because it is not included in Yu's official collection of writings, *Oryip*. Instead, only *Mukbogo*, written by the writer himself only records this work. Originally this work has no title, but as the influence of Chae Soo's *Seolgongcheonjeon* in the previous era can be found and several important fictional composition principles are also seen in this work, this paper named this work "Aguijeon." The 'fictional composition principles' found here ar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One is a parody of the existing literary style. Yu Mong-in dared various stylistic experiments in the work by parodying existing literary styles such as petitions to the king, recreating ghost stories prevailing at the time. Also, he metaphorically likens "Aegwi" to Kim Ga-si, a court lady who wielded power in the royal court of the time. For the last, he has used polysexual voice. Numerous ghosts appear in this work and their voices are revealed in various ways, all of which are conveyed through a message heard by Yu Mong-in from someone else. In addition, his own voice is mixed in the middle, and various languages and voices are mixed.

Throughout these composition methods, Yu primarily tried to criticize the corrupted world of the time. At the time of writing this work, he was in an extremely unstable state living a politically failed life, and the critical consciousness of the court drove him to create this work. Meanwhile, he is expressing his pride

in himself, who has lived morally perfect life throughout his life by expressing his resentment to the ghostly world, while expressing his delivery of his own depression.

Therefore,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literary value of 'Aeguijeon' as a fiction, which is a special work that reveals emotions such as sarcastic criticism, self-esteem, anger, fear and anxiety through human and ghost conflict.

keywords: Yu Mong-in, ghost stories, Aeguijeon, fiction, Kim Gae-si, Gwanghaegun  
(光海君)

접수일자: 2021. 9. 30.

심사기간: 2021. 10. 1. ~ 2021. 11. 10.

계재결정: 2021. 11. 10.